


[오르비 반응]

1.  문제잡는선변 · 892689 · 11/17 18:03 · MS 2019 (수정됨)
30점대 받고 'JONNA CIVAL'이라는 후기를 남기더군요... 중간에 고양이 귀엽다는 말도 덧붙여서요...ㅋㅋㅋㅋㅋㅋ 아마 충격 많이 받았을터이니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지요


2. 전자책 두리두리 보고있는데, 힙한 이름의 모의고사가 있길래 사서 풀어봤습니다 ... 수능형1회 풀어봤는데 난도나 포인트면에서 썬스ㅈㅈ였음 ... 1~5번 푸는데 기출에서 봤던 내용들이 진짜 이쁘고 뷰티하고 인테그리티하고 스테이빌리티하게 변형돼있길래 "카- 사쓰가 이름값하는 정통이네-" 하고 푸는데 9번썬인가에서 독배기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 해설지봤더니(굉장히 상세함) ... 제가 틀리거나 헛갈린 부분이 전부 교과서나 기출기반임 ㄷㅋ ... 추천드려요
-<https://orbi.kr/00013472612>

3. 단언컨대 생운계에 존재하는 초고난도 모의고사입니다. ... 그렇다고 난해한 선지나 극지엽선지가 있는건 아닌데 답지를 보면 생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생운 본인이 좀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이 모의를 풀고 작성하시길 바라구요.. -<https://orbi.kr/00013584513>

4. 그냥 뭔가 전자책이기도하고 큰 기대감은 가지지 않아서 그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둔-기출-교과서 풀반영이구요. 표현들이 윤리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국어적으로 굉장히 깔끔했어요 강추함. -<https://orbi.kr/00013852541>

6. 갓갓 Zola 덕분에 생운 만점 받았습니니다!!!!!!!!!!!!!!!!!!!!!! ... TTTTTTTTTTT T TTTTTTT 진짜 너무 감사해요 EOO(특정 샘을 지칭하는 용어라 생략했습니다)의 밑도 끝도 없는 어려운 파이널보다 졸라 시발이 zola 도움되었습니다 TTTTTTTTTTTTTTTTTTTTTTTT 너무 감사해여.
-네이버 메일로 온 내용임당.

7. 난이도는 평가원 이상입니다. 한 큐에 바로 딱딱 풀리는 게 아닌 지문을 꼼꼼히 읽고 사상가를 파악하거나 혹은 그 제시문 자체의 내용을 파악하는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https://orbi.kr/00018229364>

8.  셀럽파이브 · 822063 · 11/02 00:29 · MS 2018
쌤 진짜 좋시모 수능형 1회 풀었는데... 감히 현존하는 생운 모고 중 1등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느 모고보다 해설이 자세함... 실모 주구장창 쟁여놨는데 좋시 3회독하고 수능보러 갈까봐요 ㅎㅎ^_^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9. (현강생-모든 생운 시험이 만점에 수렴하는 실력자) 쌤 진짜 좋아요!

----차례----

회차	문항 번호	문제 있는 곳(쪽)	해설 있는 곳(쪽)
출시 1회	1~10	1~3	12~31
출시 2회	11~20	4~6	32~53
출시 3회	21~30	7~9	54~75
Zola 경고	31	10	76
빠른 답 확인		11 쪽	

----문항별 핵심 정보----

1회		2회		3회	
번호	주제	번호	주제	번호	주제
1	책임 윤리 (요나스)	11	죽음관 (볼가/에피쿠로스/도가)	21	국가관 (동양 사상)
2	계약론적 윤리 (하버마스/롤스)	12	환경윤리 (칸트)	22	사회정의 (마르크스/니부어/롤스)
3	국가론 (사회계약론)	13	서양윤리이론 (칸트/아리스토텔레스)	23	해외원조 (칸트/싱어)
4	국가론 (동양사상)	14	교정정의 (벤담)	24	세계평화 (칸트)
5	교정정의 (루/베/칸)	15	직업관 (칼뱅/마르크스)	25	사상가 통합 주제 (롤스)
6	사회윤리 (니부어)	16	평화-국제관계 (갈통/모겐소)	26	민주vs.민본
7	시민불복종 (롤스)	17	분배정의 (롤스/노직/왈처)	27	정의 (아리스토텔레스/플라톤)
8	해외원조 (싱/롤)	18	환경윤리 (심층생태/패스모어/레건)	28	환경윤리 (패스모어/요나스/칸트)
9	교정정의 (베카리아)	19	분배정의 (노직)	29	서양윤리이론 (덕윤리)
10	환경윤리 (레오폴드/테일러)	20	계약론적 접근 (흠스/롤스)	30	분배정의 (롤스)

+ 31번

Hell 교시

맛보기(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1 8

1

최종 후보 30문항에 아쉽게 들지 못한 문항들입니다.(작년에 사용한 문항이어서)
출시 모의고사의 성격, 컨셉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십시오.

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윤리는 자유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예술은 미적 체험을 통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윤리와 예술이 별개인 것만은 아니다. 윤리와 예술 모두 이기적인 욕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을: 미(美)는 대상의 완전함이며, 이는 비례와 균형에서 나온다. 진리[眞]가 완전하듯이 미 역시 완전하며, 이는 동시에 도덕적인 좋음[善]을 뜻한다. 예술은 진리를 모방하는 것이다.

- ① 갑은 도덕과 달리 예술에서는 보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② 갑은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의 판단 근거는 형식이라고 본다.
- ③ 갑은 자기 이익에 대한 무관심성은 미와 선의 공통점이라고 본다.
- ④ 을은 예술 작품이 비례와 균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모두 예술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2. 다음은 서양 사상가와의 가상 대담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선생님은 왜 동물 실험을 반대하시나요?

사상가: 믿음과 욕구, 지각과 기억을 가지면서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고 정서적 생활을 하는 존재는 합부로 침해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생명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상가: ㉠

- ①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삶의 주체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② 생명 공동체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 ③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 ④ 감각을 지닌 모든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 ⑤ 생명의 다양성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Zola Guide

1. 지금 점수가 수능의 점수가 아님!
2. 문제와 해설을 같이 보면서 개념 공부한다는 식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입니다.
3. 해설에서 ‘바나나 선지’ 라는 것은 항상 참 또는 거짓이거나 혹은 충분히 제시문이나 핵심 지식으로 연상(추론)가능한 선지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선지를 의미합니다.
4. 출처 보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보는 법(예)

1. 평가원

- (1) 16-9-3 = 16학년도(15년 시행)-9월 평가원-3번
 (2) 21-수능-5-㉓ = 21학년도(20년 시행)-수능(11월)-5번-선지 ㉓

2. 교육청

- (1) 16-3교-5번 = 16년 시행-3월 교육청-5번
 (2) 17-10교-10번 = 17년 시행-10월 교육청-10번

3. ebs 수특/수완

- (1) 21 ebs 수특 73쪽 5번 = 21년 발행(22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특강 73쪽 5번
 (2) 19 ebs 수완 11쪽 3번 = 19년 발행(20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완성 11쪽 3번

5. 해설의 어법(?)은 반말과 높임말, 줄임말 등이 혼용됩니다. 해설자가 마음 편하게 해설해야 해설이 잘 될 것 같아서 Zola가 편한 대로 할게요.
6. 수능형 목표 1컷 - 수능형 문제는 1컷 44점 이하(2~3개 이상은 틀린다)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현강(종로) 수강생들의 예비 테스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70% 정도가 1컷 38~42점으로 예상함.)

빠른 답 확인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총시 생활과 윤리] Zola 영역

3

1 답 ①

☛ Zola Guide (1) 기술 분석할 때 맨날 자기 '틀린' 문제에만 관심있는 바나나 저격용임. 위 문제는 [21-9-6]와 거의 유사한 문제이다. 참고로 [21-9-6]은 정답률이 72%였다. 이 문제의 정답률은 몇 %일까? (2) 칸트를 다룬 ebs 수특·수완 문제들은 모두 확인해 두길 바람. 다른 사상가는 심미주의-도덕주의 개념으로 풀림. 그런데 칸트는 지식이 있어야 함. (3) 진심 조언하는데 문제가 틀리면 해설'만' 보지 말고 남들의 개념 필기 노트나 교재를 확인해야 함. 그리고 남들 머리 속에 어떻게 개념들이 정리되어서 암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길 바람!!

① 같은 도덕과 달리 예술에서는 보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 거짓. 우선 제시문에서 확인 불가능. 이것은 지식임. but (1) 예술과 윤리가 공통점이 있다는 제시문 부분과 (2) 이 제시문이 칸트라는 지식이 결합된다면 (3) 윤리가 보편적이듯이 예술도 보편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추론 가능함. 아래 참고.

[참고] 18-10교-5

5.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미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각기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니지만 형식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삼정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요컨대 둘 다 이해 타산적 관점에서 벗어나고 자유의 체험을 내포하며 보편적인 타당성을 요청한다.」

을: 예술은 형식의 관에만 보이는 아름다움의 질서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예술은 영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관조함으로써 영혼이 아름다움에 동화되어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 보기 >」

ㄱ. 갑: 미는 도덕성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ㄴ. 갑: 미와 도덕적 선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ㄷ. 을: 미의 이데아는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객관적 실재이다.」

ㄹ. 갑, 을: 예술은 도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

② 갑은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의 판단 근거는 형식이라고 본다.
→ 참. 21-9-6-① 선지 그대로 재할용함. 저작권 위반인가?
→ 이 부분도 칸트의 의무론을 이용해도 됨. 남들은 칸트의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의 '형식'을 주어진다는 지식을 갖고 있음(없다면 칸트 다시 공부할 것. 칸트 윤리가 '형식'주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임!).

[21 ebs 수특 22쪽]

②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의식할 수 있음 → 도덕 법칙은 정언(定言)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음

→ 여튼 그래서 예술과 윤리의 공통점이니까 윤리가 갖고 있는 형식을 예술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추론이 가능함. 어차피 우리는 칸트 예술관을 모르니, 그리고 제시문에도 나오지 않으니 시험장에서 남들은 이런 추론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해야 함. 내 추론이 충분히 개념에 근거한 합리적인 추론이라면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버리는 것임. 시험장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함. 여러분이 구매한 Zola의 모의고사는 이런 것을 연습시키는 모의고사임.

③ 갑은 자기 이익에 대한 무관심성은 미와 선의 공통점이라고 본다.
→ 참. 21-9-6-②와 같은 내용임.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칸트 글에 있음. 아래 참고 자료 확인할 것!

④ 을은 예술 작품이 비례와 균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 참. 솔직히 이건 국어적으로 해결됨. 플라톤 얘기임.

⑤ 갑, 을은 모두 예술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 참. 국어적으로도 해결되고, 칸트와 플라톤 모두 예술과 도덕을 연결시킴. 지식적으로도 문제 없음.

[참고] 칸트의 예술관("판단력 비판")

(1) [16 ebs 수특]

아름다운 것은 도덕적 선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며, 그들의 판단력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판단한다.
☛ 칸트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미적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의 상징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와 도덕적 행위를 할 때, 감각적 즐거움을 넘어서는 고양된 감정을 지니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즉 아름다움은 특정한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보편적인 것이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도덕과 통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름다움이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우리는 가을철 불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판단하는데, 이때 우리 내면은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 한편, 도덕은 자유가 전제될 때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의 자유는 느끼는 자유가 아니라 사고를 통해 상정된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는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덕적 행위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적 체험을 통한 자유와 도덕의 전제인 자유는 서로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기적인 욕구에서 벗어나 있다(무관심성),"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간단 비교표임. Zola의 독해임, 핵심어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참고할 것, 외우는 것 아님!

	윤리(선)	예술(미)
공통점	자유(자율), 무관심성	
차이점	외면 체형 전(전제)	내면 체형 후(결과)
	사고 간접 확인	느낌 직접 인식

(3) 20 ebs 수특 140쪽

자료 플러스 미(美)에 대한 칸트의 입장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며, 사람들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판단한다. ... (중략) ... 순수하게 감성적인 동물은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느낄 수 있으며,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의 의욕은 선에 해당한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가 느낄 수 있는 선을 추구할 수도 있고, 동물이 느낄 수 있는 안락함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적 즐거움은 동물과 신적 존재 사이의 중간자인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며,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 칸트, "판단력 비판" -

칸트는 미적 체험이나 도덕적 행위는 모두 자유가 전제될 때 성립할 수 있으며 이기적인 욕구를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는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참고] 16 ebs 수특 ☞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자료이기에 부득이하게 무단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남들아, 이런 걸로 나 끈지르는 말아 줘)

다음 관점에서 지지할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쾌락은 항상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이해 관심(사적 욕구)과 무관한 자유로운 만족이다. 이렇게 순수하게 바라봄, 즉 관조함이 미적 판단을 순수하게 자유로울 수 있게 한다. 아름답다는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할 것으로 요청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름다움은 도덕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 보기 >

- ㄱ. 아름다움은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 ㄴ. 아름다움과 도덕성은 모두 이해 관심과 무관하다.
- ㄷ. 아름다움의 가치는 효용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 ㄹ.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직접적으로 도덕적 목적을 추구한다.

답: ㄱ, 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아름다움에 대한 칸트의 입장이다. 칸트는 우리가 미적 판단을 내릴 때 그 대상이 우리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가(유용성)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즉 미적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대상과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있고 자율적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도덕적인 것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ㄱ.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공통적으로 유용성을 초월한 순수한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ㄴ. 아름다움과 도덕성은 모두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ㄷ. 아름다움의 가치는 효용성의 원리를 초월한다.

ㄹ. 아름다움이 도덕성 실현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직접적으로 도덕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칸트는 아름다움이 '상징적'으로 도덕성과 연결된다고 한 것이다.

2 답 ①

☞ Zola Guide (1) 기술 제시문을 무시하는 바나나 지적용임(19-수능-9). (2) 개체론 또는 전일론 사상가가 누구인지는 알면서 개체론과 전일론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모르는 바나나를 지적하기 위한 문제임. (3) 개체론이 파악하는 생명 공동체와 전일론이 파악하는 생명 공동체의 차이를 묻기 위한 문제임.

사회문화 선택자들은 개체론은 명목론, 전일론은 실재론으로 보면 된다. 개체론(명목론)은 개체가 우선이며 개체가 잘 되면 전체가 잘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체를 보존하려면 개체의 보존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일론(실재론)은 전체가 우선이며 전체가 잘 되어야 개체도 잘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체를 먼저 보존해야 한다. 개체를 아무리 잘 보존한다고 해도 전체는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개체론자들은 개체의 보존을 통해 공동체의 보존으로 이어지는 입장이고, 전일론자들인 공동체의 보존을 통해 개체의 보존으로 이어지는 입장이다.

제시문: 레건. 레건의 핵심 개념어인 삶의 주체를 생략하고 기술 제시문과 레건 원문을 편집한 것임.

- [제시문] **믿음과 욕구, 지각과 기억을 가지면서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정서적 생활을 하는 존재는 함부로 침해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 남들은 밑줄 친 부분에서 인간과 상당한 수준의 동물(성장한 고등 포유류)이 해당하겠구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면 됨. 여기에 '권리'를 합치면 동물 권리론 얘기하는 레건이구나를 알 수 있음.
- [17-9-10]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 일련의 특징을 지니고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만이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 [17-수능-5] 우리는 지각, 기억, 믿음 등을 지닌 삶의 주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들의 가치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 [20-9-10] 삶의 주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들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내재적 가치는 무조건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갖거나 갖지 않는 것이지 중간은 없다.

①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삶의 주체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참. 개체론적 관점. 개체들이 '잘' 되면 공동체도 '잘' 됨. 지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19-수능-9-을 제시문이다. 원래는 [①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합니다.]로 하려고 하였다. 삶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기를 무지 고민했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결국은 표현했음.

- [19-수능-9-을] 일부 동물들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우리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그 공동체는 보존될 것이다.**
- [레건, the case for animal rights] 이것이 생명이 없는 자연 대상들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야생지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정책은 정확하게 보존주의자들이 원하는 것, 즉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 될 것이다. ... **우리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적절히 존중한다면 그 공동체는 보존되지 않겠는가?**

② 생명 공동체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하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 거짓. 전일론적 관점.

- [18-수능-11-병] 인류를 대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본다면 대지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 [19-수능-9-<보기> <ㄷ>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

③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 거짓. 레건은 생명체 중에서 삶의 주체가 되지 않는 존재들이 있음. 즉 삶의 주체가 되는 생명체와 삶의 주체가 되지 않는 생명체를 구분하였음. 레건에 따르면 삶의 주체(인간과 일부 동물)만이 도덕적 권리를 가진.

④ 감각을 지닌 모든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 거짓. 레건은 감각을 지닌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봄. 이것은 제시문으로도 확인됨.

⑤ 생명의 다양성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거짓. 심층 생태주의 입장임. 생태 중심주의라고 파악하면 됨. 주의할 점은 생명 중심주의가 아니라는 점임. 생명 중심주의는 '개체론'이기 때문에 생명 하나하나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지, 생명의 '다양성 자체'가 주된 관심사는 아님. 개체론과 전일론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고난도 선지가 됨. 네스의 심층 생태주의 입장 잘 파악해 둘 것. 수득·수완 자료에 있음. Zola의 교재 자료에도 있음.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음.

[심층 생태주의의 주요 원리(네스와 세션스)(데자르맹, "환경윤리")]

- ①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본성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생명체의 가치는 협의의 인간의 목적에서 나오는 유용성과 무관하다.
- ② 생명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삶이 번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 ③ 인간은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축소시킬 권리가 없다.

[참고] 개체론과 전일론 개념 강화

☞ Zola Guide '생명 공동체' 관련한 테일러(개체론)와 레오폴드(+심층 생태주의, 모두 전체론)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일 것 같네요. 일부 표현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고려하여 '개체군'이라는 개념어는 삭제하였습니다(Zola가 임의적으로 추가한 부분은 없습니다.)

(1) 생명 공동체에 대한 개념적 분석(윤혜진, 철학탐구 28집)

본 논문에서 ... 생명 공동체가 그 속에 포함된 개체들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개체론과 생명 공동체를 개체들의 총합 이상이라고 보는 전체론을 철학적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다. ... (중략)...

개체론적 관점에서는 ... 단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생명체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개별 생명체의 이익과 욕구 같은 독자성이 생태학적 이해를 결정하는 최우선적 방책이 된다. 개별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개체성과 특이성인데, 이러한 특성에 따라 개별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와 독립된 존재로 인식된다. 이런 까닭에, 생명 공동체 개념을 설명하면서, 개별 생명체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하나의 전체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전체론적 범주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생명 공동체가 개별 생명체의 단순한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 개체론의 입장에서 서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론적 관점에 서면, 개별 생명체의 이익이 아닌 생명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고려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환경윤리 차원의 도덕적 우선성을 결정하는 것 역시 생명 공동체 전체의 이익인데, 이것은 언제나 개별 생명체의 이익에 선행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개별 생명체의 이익과 필요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이익은 흔히 생명 공동체의 필요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전체론적 관점에

서 보면, 생명 공동체는 ... 전체적으로 안정 상태에 이른다는 점에 관한 생태학적 특성을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항상성 이외에도-안정상태를 의미함(Zola 주)) 종의 안정성, 혼돈으로부터의 회복 능력과 같은 것들은 전체론적 관점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다.

(2) 한면회, “미래 세대와 생태 윤리”(비상교육)

레오폴드는 윤리의 눈으로 자연에 다가가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 즉 생명 공동체의 순결과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행하여야 한다. 이때 자연이 균형에 이상이 발생하여 일부 동물 중, 예컨대 사슴의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생태계 자생 식물을 멸종에 이를 정도로 해치고, 그에 따라 토양 침식이 야기될 정도로 우려가 되면, 그런 사슴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인간이 사라진 늑대와 같은 포식자 역할을 대행하여 사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사냥감인 피식자의 개체 수 조절은 알맞은 정도로만 진행되어야 한다. 레오폴드가 승인하는 사냥꾼은 생태학적 인식과 윤리적 의식을 함께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